

수강신청 강의계획서 부재 심각

연도만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업적평가에도 영향 미미

학생들의 수강 편의를 위한 교수계획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수계획서는 학생들이 수강신청 전 해당 강의의 정보를 얻고자 사용하는 자료다. 교수들이 한 학기동안의 학습 목표, 교재, 강의 방법 및 과제와 시험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계획서를 올리면 학생들이 참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강신청 기간 동안에도 계획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통일된 양식 없이 교수 개개인의 방식대로 계획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김현진 (행정학과 3)씨는 “전공과목의 경우 교수님에 따라 과제나 학점 부여 기준이 달라 계획서를 참고할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작년 계획서를 낱판만 변경해 올라온 경우가 빈번하고 강의내용이 계획서와 달라 당황한 적이 많다”고 말했다.

학사과 측은 수강신청 기간 전후를 이용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2학기 개강 전 학사과는 총 4번(1차-7월 8일, 2차-7월 28일, 3차-8월 5일, 4차-8월 20일)에 걸쳐 공문을 교수들에게 발송했다.

고영중 학사과 팀장은 “개강 전 수많은 검토를 통해 교수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강의를 찾아 협조 공문을 보낸다”며 “하지만 교수들의 출장이나 담당 교수의 변경·미등록 사례들이 종종 있어 모든 과목에 빠짐 없이 계획서를 올리는 것은 무척 힘들다”고 말했다.

강의가 진행됨에도 교수계획서를 올리지 않은 교수는 교무과 교수 업적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계획서를 올바르게 올릴 시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익명을 요구한 학내 관계자는 “업적평가에서 교수계획서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감점을 받는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는 교수들도 있다”며 “학생들의 불만사항은 이해하지만 담당 부서의 업무 대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계획서의 한정된 양식과 분량 탓에 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계획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송석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수회장은 “강의 진행이 매년 변하는 유동성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한 계획서를 제출해도 무방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수들이 작성한 계획서가 제한된 양식과 분량에 제약을 받아 다소 학생들에게 미흡해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교수계획서를 미제출 하는 교수들이 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강의를 신중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획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계획서를 제공받는 것 또한 학생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정운 (정치외교학과 4) ‘진짜’ 총학생회 교육국장은 “총학생회 공약에 포함된 사안인 만큼 학생회에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1학기에 학사과의 대화를 통해 방안을 논의했고, 9월에는 학사과 주관으로 교수들로 이뤄진 연구회를 구성해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막는 도서관 바코드 발급

도서관 이용시 학번으로 본인 인증

중앙도서관 (관장 김홍수 통신공학과 교수)은 8월 6일부터 개인정보가 기입되지 않은 바코드를 발급하고 있다.

8월 7일 이후로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제공 등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서 기존 바코드의 사용이 제한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본인인증을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학번으로 인식하는 바코드를 재발급하고 있다.

8월 6일 이전에 발급된 기존바코드를 사용할 경우 교내 도서관 (중앙도서관, 제2도서관, 법학전문도서관, 의학전문도서관, 교육대학도서관) 이용시 책의 대출 뿐만 아니라 자동대출 반납기, 좌석배정기의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다.

아라캠퍼스 학생들은 학생증이나 이용증을 가지고 중앙도서관 대출실로, 사라캠퍼스 학생들은 교육대학 도서관 안내데스크로 방문하면 된다. 2학기부터 학생증을 발급받은 학생은 바코드를 재발급 받지 않아도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김해건 기자



하늘은 어두웠지만 그들이 쓴 노란우산은 사회를 밝히고 있다. 8월 27일 박요한 (행정학과 4), 김광철 (일반사회교육전공 4), 이성민 (정치외교학과 1), 안재성 (정치외교학과 1)씨가 세월호를 잊지 말자, 철저한 비상규범과 함께 유가족이 주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외치며 제주시청 일대를 걷고 있다. 이들은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제주대 정문을 시작으로 제주시청 어울림광장까지 거리 시위를 벌였다. 김해건 기자

사무국장에 이용균씨 부임

이용균 (51) 서울과학기술대 사무국장이 1일자로 제주대 사무국장으로 부임했다.



이용균 신임 사무국장은 1988년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1998년 서기관, 2009년 부이사관을 거쳤다. 또 주 러시아연방대사관 1등 서기관과 교육부 대학재정복지팀장, 목포해양대 총무과장과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충주교과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미국 플로리다 공과대학에서 석사학위, 숭실대학교원에서 평생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경태 기자

알립니다

제주대신문 논설위원 교수 21명 위촉

제주대신문이 9월 1일자로 2년 임기의 논설위원을 새롭게 위촉합니다. 논설위원들은 앞으로 사설 집필을 통해 대학과 사회문제에 대해 명쾌한 방향타를 제시합니다. 다음은 논설위원 명단.

▶인문대학 △김동운 (국어국문학과) 교수 △정창원 (사학과) 교수 △서영표 (사회학과) 교수 △김치완 (철학과) 교수 ▶사회과학대학 △양덕순 (행정학과) 교수 △오승은 (행정학과) 교수 △최낙진 (언론홍보학과) 교수 ▶경상대학 △김동욱 (회계학과) 교수 ▶사범대학 △권상철 (사회교육과) 교수 ▶

생명자원과학대학 △현해남 (식물자원환경전공) 교수 ▶해양과학대학 △이동욱 (토목공학과) 교수 ▶자연과학대학 △이윤경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과대학 △김태일 (건축학부) 교수 ▶교육대학 △전제웅 (초등교육과 국어교육전공) 교수 ▶수의과대학 △손원근 (수의학과) 교수 ▶간호대학 △현미열 (간호학과) 교수 ▶의학전문대학원 △강영준 (의학과) 교수 △정성철 (의학과) 교수 △김진우 (의학과)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고호성 (법학과) 교수 △산용인 (법학과) 교수 등 총 21명.

사령

강수빈 (언론홍보학과 2) 취재기획부장에 임명함

박소연 (언론홍보학과 2) 편집부장에 임명함

강서윤 (언론홍보학과 1) 김하윤 (언론홍보학과 1) 김해건 (정치외교학과 1) 전지민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1) 정현 (언론홍보학과 1)

정기자에 임명함
이상 9월 1일자

제주대신문

미래첨단 IT융합

문화콘텐츠 디자인

교육훈련생모집

201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교육생 모집 공고

제주 미래전략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에서는 제주지역 미래전략산업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 첨단과학단지과 제주혁신 도시 내 일자리창출을 위한 '201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하반기 교육생을 다음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분	교육과정명 (트랙명)	교육기간(시수)	모집인원(명)	교육장소
첨단과학단지 인력양성 클러스터	방송모바일콘텐츠제작전문과정 (문화콘텐츠디자인전문인력양성)	'14.9.15~'10.31(160H)	30	제주대 정보통신원
	제주로하스청정헬스푸드전문과정 (해양바이오전문인력양성)	'14.9.22~'10.31(160H)	20	제주테크노파크(JTP)
	안드로이드 앱개발전문과정 (미래첨단 IT융합전문인력양성)	'14.9.15~'10.31(160H)	20	제주대 공과대학
제주혁신도시 인력양성 클러스터	MIICE산업 전문과정 (휴양·의료복합형관광전문인력양성)	'14.9.15~'10.31(160H)	30	제주대 경성대학
	기상풍력전문과정 (기상풍력전문인력양성)	'14.9.22~'10.31(160H)	20	제주대 본관 멀티스터디룸

○ 2014.09.12(금) ~ 9.13(토) : 공통교육(CEO초청특강 및 취업역량강화교육) *상기 교육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교육과정

■ 교육기간

204.9.12(금) ~ 10.31(금) 공통교육(20시간) + 이론·실기교육(60시간) + 현장실습(80시간)

추치: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

■ 지원자격

○ 제주도내 거주자 및 이주예정자로 **미취업자** 및 **창업예정자**(선착순 마감) ○ 만 34세 이하 청년구직자 우대

■ 교육생 특전

○ 교육비 전액지원(교통비, 식비, 실습비 지원) ○ 관련 자격증 응시료 지원
○ 협약기업 및 희망취업처 우선추천 및 채용연계 ○ 무료 취업코칭, 지속적 취업알선으로 조기취업지원
○ 교육수료증 발급(단, 80%이상 수업참가 시)

■ 추진일정

공고 (8/20~)	신청/접수 (~9/26)	공통교육 (20H)	이론·실기 교육(60H)	실습 및 인턴 (80H)	사후관리 (수료후 6개월)
사업공고	이메일, 팩스, 방문 접수	기업체현장견학 및 소양교육	교육진행	희망업체 실습 및 인턴	취업지원관리

■ 신청 및 문의

- 모집기간: **공고일 2014. 08. 20(수)부터 2014.09.26(금)까지 (합격자 별도 통보)**
1차 모집: 2014.8.20(수) ~ 9.11(목)까지 선착순 마감(합격자 별도 통보)
2차 모집: 2014.9.12(금) ~ 9.26(금)까지 추가 모집 예정
- 제출서류: 교육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 홈페이지(http://career.jejunu.ac.kr/)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발송)
- 문의처: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 일자리창출지원사업팀 tel.064-754-4458~9 / fax.064-755-6207 / e-mail.cnucareer@jejunu.ac.kr

사설

제주대 비전을 향하여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으로 함께하는 도전, 행복한 대학공동체, 제주대학교의 비전이다. 이를 위한 2가지를 시도해 보자. 하나는 현재의 장학금 제도를 일부 개정해 학생들에게 주는 재정지원을 장학금(scholarship)과 보조금(assistantship)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를 줄이며 후자를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장학금은 우수한 학생에게 조건없이 보상하는 성격의 지원으로 현재 장학금이 이 형태로 주어진다. 보조금은 어느 정도 교내 교육, 연구와 관련한 근로를 시키고 이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급으로 수업진행을 보조하거나 도서관에서 자료 정리, 또는 특정 전공과 관련된 활동 등 상당히 다양한 근로가 가능할 것이다. 학부 고학년 그리고 대학원생의 경우 수업 관련 근로로 학생수가 많은 교양수업의 경우 유인물 준비, 과제물 제출 확인, 학생 질문에 대한 보충 답변, 기본적 평가 등의 부수적인 일들을 분담함으로써, 전임 교원의 수업 내실화가 가능해 질 것이다. 근로 업무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들은 전산도우미 장구를 만들어 컴퓨터 전반에 대한 질문이나 고장 대처 방법 등을 상담해 주는 활동이 가능하며, 도서관도 자료 정리 외 도우미센터를 운영해 외부 방문객들이나 저학년 학생들에게 자료 검색, 도서 찾기 등의 도움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보조활동들은 담당 학생에게 책임, 규율, 지도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대인 관계의 노하우를 쌓을 기회 또한 제공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이 동시키면 교수들이 연구에 더 시간을 쓸 수 있어 연

구대학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은 교내 운영에 함께하는 기회가 늘 것이다.

다른 하나는 행복한 대학공동체를 위해 몇 가지 개선을 시도해 보자. 우선 등교 길 정문에서 주차요원이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은 교육과 연구를 하는 대학교 분위기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관공서 분위기를 자아낸다. 우리 학교는 지역 국립대학으로 누구나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정문은 방문객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캠퍼스 안 내지도 유인물을 만들어 필요한 사람에게 방문지를 표시해주며 설명해주는 친절이 필요하다. 주차 규정을 어길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단속보다는 우리 학교를 찾는 방문 차량은 환영해야 한다. 대신 법규를 어긴 차량에 대해서는 지역 경찰과의 협조로 법적금을 학교라는 특성상 적은 액수로 부과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급하게 운무를 보는 사람을 위해 접근성이 좋은 곳에는 유료 주차코너를 만들어 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캠퍼스 관리는 법규 준수를 교육하는 의미가 있고, 법칙금 수입 재원은 공익적, 특히 교내 순환버스 운영 보조금 용도로 사용하면 형평성 또한 개선될 것이다.

대학내에서 선배와 후배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배우는 일자리가 많고, 불법 주차를 보며 눈살 찌푸릴 일 없는 기본적 규율이 지켜지는 캠퍼스 만들이는 행복한 공동체,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명문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짚어 봐야 할 일들이다.

졸업생들에게 부끄러운 대학

후기 졸업식장 앞 순환도로에 걸린 졸업축하 플래카드 중 ‘백수가 된 것’을 ‘환영’하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졸업은 곧 백수요 백수가 된다는 것은 지옥과 같다는 표현이었다. 축하 문구치고는 섬뜩한 느낌이었다. 섬뜩한 문구가 ‘재기발랄’한 표현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을 만큼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느끼는 우리시대 젊은이들의 ‘절망’을 읽을 수 있어 서글퍼지기가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찬란한’ 날에 황량한 세상을 맞닥뜨려야 하는 졸업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겨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대학이 해 준 것이 너무 없다. 도대체 이런 황량한 현실에 맞서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청년세대를 비정규직과 실업으로 몰아넣으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열정을 가지라고 다그치고 있다. 하지만 참고 견딘 후 향유할 수 있는 달콤한 과실은 이미 출발부터 소수에게만 보장되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열정은 좌절로, 좌절은 원망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이렇게 불합리한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대학이지만, 이제 대학마저도 무한경쟁을 당연시하고 맹목적인 경쟁논리를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대학에게 졸업생의 취업은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한 지표가 된지 오래다. 어찌 보면 학생은 대학의

주인이 아닌 대학 존립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지식인이 아닌 단순한 기능인을 사회에 내보내고 있다.

우리사회가 필요한 것은 소통의 능력과 사회적 연대 정신이다. 자기 것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개인들이 만들어 내는 ‘지옥도’를 목격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일 것이다. 하지만 대학은 이것과 정반대의 것을 가르친다. 가르치지 않은 것을 실천하라고 스승의 이름으로 훈계하는 오늘날 대학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가?

제주대학교의 졸업생들은 생존하기 위해 남을 밟고 가기보다, 자기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기보다 소통하고 배려하고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고립된 개인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그 고통의 근원을 직시하기 보다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되갚아주는’ 사람이 아니길 바란다.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이기주의’라는 바이러스의 면역체를 가지고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정부가, 교육부가, 대학이, 교수들이 빠져서 하우 작대는 ‘효율성을 앞세운 비효율’,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경쟁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청년세대밖에 없음을 호소한다. 축하반야야 할 졸업생들에게 이런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대학은 이제 존재이유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질문해야 한다.

제주대 취업률 전국 거점국립대 중 3위

작년보다 2.3% 줄었지만 거점국립대 평균보다 높아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앞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효과

우리대학의 취업률이 교육부 정보공시 결과 50.5%(지난 6월 1일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취업률인 52.8%보다 2.3% 감소한 수치이다. 제주대는 9개 전국 거점국립대 평균 취업률 49.2%보다 1.3% 높은 실적을 보였다. 또한 거점 국립대 중 부산대(52.0%), 전남대(51.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임재운(통신공학과 교수) 취업전략본부장은 “대학 구조조정 등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었다”면서

“타 거점국립대와외의 취업지원 비율을 비교 해봐도 약 2배 정도가 차이나는 등 각종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럼에도 대학원 등에 진학한 학생과 군입대자 등을 제외한 순수취업률은 거점국립대에서 1위를 기록했고 전반적인 취업률이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며 “올해 진행 중인 LINC 사업단 등 다양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 내년에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예산을 더욱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정년교수 4명 퇴임식 열려…지난 28일 아라뮤즈홀서

김병택·방익찬·정덕상·고경표 교수

김병택(국어국문학과), 방익찬(지구해양학과), 정덕상(화학·코스메틱스학부), 고경표(무역학과) 교수의 퇴임식이 8월 28일 오전 10시 아라뮤즈홀에서 열렸다.

퇴임식에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고경표 교수를 제외한 3명의 교수들과 가족내외, 허향진 총장, 교직원, 재학생들이 참석해 퇴임을 축하했다.

김병택 교수는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석사와 동 대학원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했다. 방익찬 교수는 서울대학교 해양학과를 졸업, 동 대학원



8월 28일 정년교수 퇴임식에서 허향진 총장이 김병택(국어국문학과)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에서 이학석사와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덕상 교수는 경희대학교 화학과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이학석사와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

위를 받았다.

한편 올해는 여학생의 취업률이 두드러졌다. 여학생 취업률은 52.2%로 남학생 취업률(48.7%)을 앞섰다. 이는 여학생들의 여대생 커리 센터 사업 참여율 상승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취업전략본부는 취업률 향상을 위해 세일자리 박람회 개최 △단과대학별 취업 지원관 배치를 통한 일대일 맞춤형 취업 컨설팅 △재학생 미취업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2년간의 컨설팅 자료를 수집·분석해 ‘취업지원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수빈 기자

위를 받았다. 고경표 교수는 제주대학교 상학과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와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날 김병택 교수가 황조근정훈장, 정덕상 교수가 흥조근정훈장, 방익찬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각각 수여받았다. 이 외에도 총장 공로패와 총동창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김병택 교수는 “오랜기간 동안 대과(大過)없이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 당국의 세심한 배려와 교수님들의 도움 덕분이다”며 “제주사회에 중요한 학문을 전달하는 제주대학교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이시향 명예 경영학박사

장학금 3천만원 지원

제주대학교에 16억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한 재일본 사업가인 이시향 명예경영학박사(재일민단 도쿄본부장)가 1일 언론대학 좌민수(사학과 3)씨 등 15명에게 각 2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식은 이날 허향진 총장을 비롯한 학내 인사와 이 명예박사 장남인 이상훈씨,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대에서 열렸다. 김하윤 기자

(주)제주김녕미로공원

발전기금 4천만원 지원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위치한 제주김녕미로공원(대표이사 프레드릭 더스틴)은 8월 27일 공원 사무실에서 허향진 총장에게 발전기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외국인 유학생과 교류학생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강경태 기자

관광융합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센터 개소

관광융합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센터(센터장 김근형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1일 경상대학 1호관에서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허향진 총장, 원희룡 도지사, 김도균 미래부SW정책과장,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최갑열 제주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센터는 ‘관광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관광융합SW기술 창의인재양성’을 과제로 오는 2018년 2월까지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디지털 기술 기반 관광 비즈니스산업 혁신과 SW융합 실무형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강경태 기자

신입생들 “폭넓은 대인관계 중요해”

직업은 공무원·교사 선호

올해 취업전략본부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은 ‘폭넓은 대인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8일부터 5일간 올해 신입생 2423명 중 1212명(50%)을 대상으로 ‘개인 및 가정생활관련’, ‘대학생활관련’, ‘대학 및 학부(과)관련’, ‘교수 및 강의 관련’, ‘가치관 및 사회관 관련’, ‘취업전략본부관련’, ‘자신의 삶’의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하고 싶어 하는 일로 ‘폭넓은

대인관계’(36.6%)를 선택했다. 이어 전공공부(24.7%), 다양한 사회경험(18.4%)이 뒤를 이었다.

신입생들이 정래 희망직업으로는 ‘공무원 및 교사’가 40.2%를 차지했다. 공무원이 26%, 교사가 12.6%, 일반기업체가 12.3%로 잇따랐다. 이는 최근 경제적 상황 및 구직형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으로는 유능한 사회인의 기초를 다지는 것(41.8%)과 교양을 갖춘 지성인이 되는 것(30.2%)을 선택했다. 또 사회에서의 성공요인으로 41.2%가 ‘실력 및 능력’을, 다음으로 자신의 노력(17.5%)과 인격(13.8%)을 꼽았다. 부찬우 기자

(주)NXC·(주)네오플

발전기금 7천만원 지원

(주)NXC와 (주)네오플은 8월 27일 발전기금으로 7000만원을 쾌척했다. 김종현 NCX 본부장과 이인 네오플 대표는 이날 제주대를 방문해 허향진 총장에게 ‘좋은 컴퓨터교육 연구센터’ 기금으로 전달했다.

이날 두 기업은 지역 컴퓨터 교육 사업을 위해 제주대와 산학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강수빈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최낙진	편집국장 강경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제34회 백록학술상 공모

신문방송사에서는 제주대신문 창간 60주년을 맞아 제34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공통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2.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30매 내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ac.kr로 제출해야 함.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졸업논문 응모가능
※원본 파일은 본인 이름,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
3. 시 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4. 접수마감 : 2014년 12월 15일(월) 18:00까지
5.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6. 당선발표 : 2015년 신년특집호(2015년 1월 1일자)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제12회 제주대학교 영상제

- 1.일 시 : 2014년 9월 18일 목요일 오후 5시
2. 장 소 :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3. 구 성 : 제주대학교 영상 공모전 / 총 행사시간 100분
4. 공모주제 : ‘청춘’을 주제로 한 10분 내외의 자유영상물
5. 모집기간 : 2014년 5월 15일(목)~ 9월 3일(수)
6. 참가대상 : 전국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7. 시상내역 : 대 상 전체 참가자 중 1인 혹은 1팀 총장상 및 상금 60만원 수여
최우수상 중·고등부/대학생부 각각 총장상 및 상금 25만원 수여
우 수 상 중·고등부/대학생부 각각 총장상 및 상금 15만원 수여
8. 접수방법 :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http://jeju.ac.kr 접속 후 제주대소식에서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첨부 서류와 함께 작품(6mm 또는 DVD)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9. 우편접수 :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교육방송국
10. 문의사항 : 064)754-2284, 휴대폰 010-2889-6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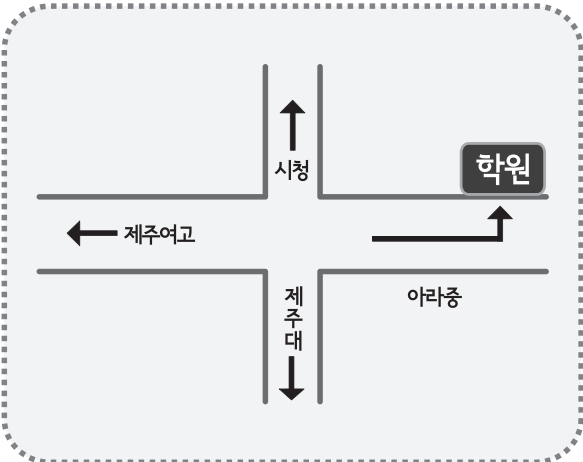
※제출한 작품 반환되지 않으며 입상 작품의 저작권은 JEBS에 귀속 됨. 영상시간 초과 시 감점 요인이 됨.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등급만 있는 ‘강의평가’에 학생들 불만

자세한 내용 없어 무용지물

평가 시기도 조정 필요

매 학기마다 진행되는 강의평가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강의평가는 강의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으나 평가 결과의 정보 부족 등으로 원래의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대학은 지난 2010년 2학기부터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강의평가를 등급으로(SS, S, A, B, C) 나눠 구체적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가연(생물학과 1)씨는 “수강신청 전에 강의평가 결과를 찾아 봤다”며 “하지만 결과를 봐도 등급으로 나

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업이 어떤지 알 수 없어 불편했다”고 말했다.

임혜성(관광경영학과 4)씨는 “강의평가 결과를 보면 많은 정보가 들어있지 않아 아쉬웠다”며 “주관식 답변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답변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의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은주(관광경영학과 2)씨는 “성적을 확인 하려면 강의평가를 해야 돼 친구들이 대충하는 걸 본 적이 있다”며 “강의평가 결과를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의심도 들었다”고 말했다.

국립 전북대는 이 같은 일을 방지하고자 2차 강의평가 기간 동안 기말고사 최종 종료일까지 강의평가를 완료한 학생들의 답변만 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있다.

최다미(전북대 신문방송학과 3)씨는 “수강신청 전 참고한 강의평가 결과가 수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며 “강의평가 결과를 참고해 선택한 과목은 대체로 만족스러웠다”고 답했다.

고영중 학사와 수업팀장은 “많은 주관식 답변을 하나하나 다 공개할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답변을 우리가 항목별로 분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교수들한테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가 시거나 답변 공개 확대 등의 개선 사항은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평가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 수강신청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 기자

의류학과 졸업작품전

Run: Urban Way 주제

제17회 의류학과(학과장 권숙희) 졸업작품전 패션쇼가 8월 30일 오후 4시와 7시 두차례에 걸쳐 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약 3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패션쇼는 ‘Run: Urban Way’를 주제로 개최됐다. 패션쇼는 ‘도시의 레트로 감성에 모던함을 더하다’라는 부주제로 Paris, London, Seoul, Milan, Tokyo 등 5가지 테마를 가지고 진행됐다.

권숙희 의류학과장은 “세계의 패션도시를 통해서 각 도시마다의 특징과 이미지가 풍기는 작품을 선보였다”며 “2014년 졸업 작품 패션쇼는 진정한 패션인이 되기 위한 실천의 무대이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주관하는 무대였다”고 말했다.

김하윤 기자

후기 학위수여식사

“시련과 도전을 기회와 꿈으로 바꿔 나가길”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울인 노력과 열정에 깊은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 정성껏 지도해주신 교수님들,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직원 선생님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800여명의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히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의실을 떠나 그토록 열망하던 미지의 세계를 향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학업에 매진하여 명예롭게 졸업하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하지만 졸업은 학업의 끝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새로운 공부의 시작이며, 참다운 자아실현을 위한 통과례의 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졸업은 기쁨과 실패 못지않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적지 않은 성장통을 겪게 합니다.

저는 오늘 정든 교정을 떠나는 모든 졸업생들에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넓은 시야를 갖고 뜻을 바르고 굳게 세우기 바랍니다. 풍량이 거칠수록 넓은 시야를 갖고 뜻을 분명히 세워야만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라뱃에서 연마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혁신정신으로 넓은 세계로 나아가십시오.

다음은 평생 학습의 자세입니다. 평생을 통하여 배움의 자세를 견지해 주기 바랍니다. 지식과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유연성이 극도로 요구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한 마디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평생 학습을 통해 지구촌 차원의 생존가능성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무한경쟁 시대에선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여 줄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무한경쟁 시대에서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겸손함과 배려의 마음입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때 진정한 자신의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재는 언제나 환영받습니다. 더 많이 듣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돕는 인재야말로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겪어 온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과 도전이 막힐지라도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도전을 반드시 기회와 꿈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과 학부모님! 그리고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제주대학교는 올해 개교 62주년을 맞아 또 한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 대학으로의 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대학교는 교육역량과 연구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글로벌 미래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제주대학교를 졸업한 인재가 세계를 누비고, 미래의 변화를 이끄는 미래창조의 주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둘러싼 여건들이 급변하면서 한국 대학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그 어느 때보다도 뼈를 깎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학 스스로가 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까만,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없이는 대학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주대학교에 대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기를 넘고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해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교문을 나서는 졸업생 여러분들도 모교인 제주대학교가 더욱 높이 날아올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학위 취득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허항진 총장

새 옷 갈아입은 실내체육관 개관

행사 후 직원 체육대회 열려

새롭게 리모델링된 체육관 개관식이 8월 29일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대학 학생·교직원들과 체육관 시공을 맡았던 (주)금성종합건설 대표가 참석했다.

행사는 김재학 시설과장의 체육관 공사 경과·시설현황 보고와 허항진 총장의 인사말로 마무리됐다.

허항진 총장은 “오랫동안 낙후됐던 체육관이 마침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돼 기쁘다”며 “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체육관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내 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4094.35㎡ 규모로 경기장 외에도 강의실, 강의준비실, 샤워실, 라커룸, 화이트니스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각종 공연들이 가능하도록



8월 29일 리모델링한 체육관에서 허항진 총장과 학내 인사들이 커팅식을 하고 있다.

무대조명, 음향, 카메라 등 시설도 설치됐다.

한편 행사 직후 공무원직무협의회

가 주관한 ‘2014 직원 한마디체육대회’가 열렸다.

백승규 기자

아시아공동체 위한 ‘원 아시아 제주 2014’ 열려

8월 1일부터 이틀간

국가·민족·종교 등 화합의 장

제주대 아시아공동체연구센터(센터장 김여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관하고 원 아시아 재단(이사장 사토요지)이 주최한 ‘원 아시아 컨벤션 제주 2014’가 지난 8월 1일부터 이틀간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학술교류 회의로 학자와 시민들이 국가, 민족, 종교, 언어 등을 극복하는 아시아공동체의 가치를 나누자는 목

적으로 열렸다.

학술회의에는 국내 대학교수 250여명과 아시아 29개국 200여 대학의 교수 300여명이 참여했다. 개회식에는 허항진 총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조태웅 외교부 1차관, 나승일 교육부 차관, 문국현 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 등 주요 인사 및 30여명의 아시아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최낙진 집행위원장(인문홍보학과 교수·본사 주간)는 “자유롭고 인간의 인권이 보장되는 제주는 우리가 추구하는 아시아공동체에 가장 적합한 제도의 틀과 이념적 배경이 존재

하는 곳”이라며 “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문화의 교류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며 정치와 경제 그리고 역사에 대한 공감대도 넓히는 토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아시아 재단은 △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단체 지원 △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대학 강좌 지원 △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제도와 전문적 연구 지원 △장학금 지원 △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학술·문화·스포츠 교류 지원 등의 목적을 갖고 2009년 설립된 민간 연구지원 재단이다.

백승규 기자

노동현(체육 4) 전국 3위

국가대표 선수선발 예선서

태권도부 노동현(체육학부 4)씨가 8월 15일부터 열흘간 전라남도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9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겸 ‘2015년도 국가대표 선수선발 예선대회’ 남자 대학생부(-68kg급)에서 3위에 입상했다.

노씨는 8강전에서 이주성(동아대)에게 14대3로 이겨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김훈호(우석대)에게 1대2로 아깝게 지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유주연 기자



김선아·안경홍(정치외교학과 3)

‘제20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 회의’서 장려상 수상

김선아·안경홍(정치외교학과 3)씨가 7월 5일 유엔한국협회와 연세대학교가 주관하고 외교부가 후원한 ‘제20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실제 유엔회의와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해 대학생들이 국제협력의식을 높이고 외교 교섭과정을 경험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2인 1팀으로 팀을 구성해 유엔 공개작업반의 19개 중점분야 중 ‘Post-2015 개발목표’로 반영될 10개 목표에 대해 회의를 했다.

김선아씨는 “전국대회 참가라 긴장했지만 회의를 진행할수록 자신감이 생겼다”며 “다른 학생들도 이 같은 대회에 두려워 하지 말고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2014년 8월 25일
제주대학교 총장 허 항 진

2014학년도 제2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배영환(국어국문학과)
조교수-국어음운론
△학사: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 국어학
△박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 국어학
최종 학위 논문명: ‘ㅎ’-말음 어간의 재구조화 연구



남기호(철학과)
조교수-사회철학
△학사: 연세대학교 철학과
△석사: 연세대학교 철학과 해설철학
△박사: 독일 보름루르대학교 철학과 해설철학
최종 학위 논문명: Hegels Begriff der Sittlichkeit in dessen Genese und in den Jenaer Systementwürfen



고창일(회계학과)
조교수-관리회계
△학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회계학
△박사: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관리회계
최종 학위 논문명: 경영자 능력이 경영성과 및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허윤석(무역학과)
조교수-무역운송론
△학사: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석사: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국제운송·물류
△박사: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국제운송·물류
최종 학위 논문명: 국제물류보안 강화에 따른 공급사슬 위험관리 및 지향성이 국제무역업체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재홍(지구해양학과)
조교수-해양순환모델
△학사: 제주대학교 해양학과
△석사: 제주대학교 해양학과 물리해양학
△박사: 큐슈대학교 국제종합이공학부 대기해양환경시스템학
최종 학위 논문명: Influence of wind and tidal forces on the seasonal circulations in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서미정(생활환경복지학부)
조교수-아동학
△학사: 부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 부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아동학
△박사: 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아동학
최종 학위 논문명: 포레피로핀 완화요인의 탐색 - 주변포래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



현항구(화학·코스메틱스학부)
조교수-화장품학
△학사: 명지대학교 생명과학과
△석사: 명지대학교 생명과학과 응용미생물학
△박사: 명지대학교 생명과학과 생화학(효소)
최종 학위 논문명: Development of antibiotic type-specific gene probes and molecular genetic studies for spectinomycin and bluensomycin biosynthetic pathways in actinomycetes



최수석(에너지공학과)
조교수-핵공학
△학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원자핵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원자핵공학
최종 학위 논문명: Improvement of CF₄ Pyrolysis Process by Using a Plasma Torch with Hollow Electrodes



김범석(공학부)
조교수-대형동력발전시스템설계
△학사: 한국해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 한국해양대학교 기계공학과 기계공학(동력발전)
△박사: 한국해양대학교 기계공학과 기계공학(동력발전)
최종 학위 논문명: 수평축 동력발전용 터빈 블레이드 최적설계 및 공력 성능해석에 관한 연구



송희성(의학과)
조교수-핵의학
△학사: 고신대학교 의학과
△석사: 아주대학교 의학과 의학
최종 학위 논문명: 당노 환자의 F-18 FDG PET에서 초속효성 인슐린의 영향

“영광스런 학위 취득을 축하합니다”

박사 학위

중어중문학

김민선 문학박사
현대중국어 가능보어의 연구- ‘~不了(liao)’의 사용 환경과 구조를 중심으로

사회학

김준표 문학박사
제주사회 카지노담론의 전개과정과 성격

법학

강봉현 법학박사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구상권 제한의 범위

조두환 법학박사
학교안전사고의 민사적 구제에 관한 연구

경영학

좌봉두 경영학박사
지역기술혁신 진흥기관의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내부마케팅 영향-공감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와 조직혁신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류형선 경영학박사
한국 주식시장의투자주체별 거래행태와 손익구조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

자밀쇼드리 관광학박사
Travel motivations and typology of Pakistani diaspora

장정훈 관광학박사
호텔 직원이 지각하는 직원가치명제, 조직유효성, 고객지향성 간의 관계

관광개발학

김석윤 관광학박사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및 자원적용 연구

교육학

권순철 교육학박사
형성적 접근을 적용한 대학생 자기관리역량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 대학생 자기관리역량 향상 과정을 중심으로

김영희 교육학박사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지리교육학

김법훈 교육학박사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컴퓨터교육학

박금룡 교육학박사
에듀테인먼트 기반 기초 중국어 스마트 러닝 시스템

농학

송상철 농학박사
제주 자생 상동나무의 특성과 생장조절제 처리가 열매품질에 미치는 영향

해양생명과학

사마드 라헤자드 이학박사
Study on dietary essential amino acid requirements of red sea bream (Pagrus major) and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나바니티어 우마스탄 이학박사
Molecular dissection of teleost flagellin sensing machinery: Genome-wide discovery and transcriptional profiling of flagellin signaling pathway genes in rock bream (Oplegnathus fasciatus)

해양과학

홍창수 이학박사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하는 남극순환류의 수송량 변동

해양기상학협동과정

이준호 이학박사
제주도 주변해역의 양자강 저염수 분석과 예측

생명공학

송승엽 이학박사
FT-IR스펙트럼 기반 다변량통계분석을 이용한 작품의 품종 및 형질 예측 모델링 확립과 적용

장준영 이학박사
Improving of ginsenoside content in Korean wild ginseng (Panax ginseng Meyer) through different biotechnological approaches

생물학

신혜선 이학박사
Effects of polymethoxyflavones and resveratrol on inflammatory responses and glucose uptake in adipocyte-macrophage co-culture systems

김은미 이학박사
멸종위기종 팔색조의 보전 생물학적 연구

수학

이금란 이학박사
Generalized Obata theorem on a foliated Riemannian manifold

화학

이은숙 이학박사
시로미와 Streptomyces sp. JR1으로부터 기능성 식품 및 의약 선도 소재 개발

체육학

임관철 체육학박사
육상운동 및 필라테스 운동이 척추측만증 여자중학생의 Cobb's angle과 체력, 허리근육에 미치는 영향

기계공학

레민누트 공학박사
A study on Performance Improvement of a Solar Assisted Heating System for Residential House

메카트로닉스공학

모하마드 주페일 공학박사
Fabrication and Characterizaion of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based on Printed Electronics approaches

풍력특성화협동과정

고혁준 공학박사
Heave motion response of a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with damping plate

수의학

전경의 수의학박사
단백질 항원 발현 세포배양법을 이용한 구제역 항원-항체 결합 백신 개발

의학

윤소희 의학박사
척추마취 하에 무릎 전치환술을 받는 노인 환자에서 dexmedetomidin의 스트레스 반응 경감, 혈액학적 안정성 및 수술 후 진통 효과

박선경 의학박사
A comparison of methods about pain control after arthroscopic shoulder surgery

의공학협동과정

양정화 공학박사
컬리도플러 초음파영상에서 트윙클링 현상(Twinkling Artifact in Color Doppler Ultrasonic Imaging)

석사 학위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영숙 이현정 현애순 양원혁

영어영문학과
체루쿠리 아푸루파

중어중문학과
김도경 이수어난

사학과
이용석 고수미

사회학과
김민선

법학과
현병학

언론홍보학과
곡기

경영학과
문창섭 김병우 장양

관광경영학과
강아령 김은진 김현정

경제학과
박혜영

관광개발학과
강기호 강하나

농학과
김기영

생명공학과
타이 도안 루영

어업학과
조주희

지구해양과학과
고창성 윤우석 조영진

토목해양공학과
강보성

화학과
현동림

수학과
임수산

의류학과
김은영

컴퓨터공학과
황충명

건축공학과
양윤실 백지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정좌진

물리학과
나실인

에너지화학공학전공
라이 슈어시

전기공학전공
김승현 강승진 김윤호 이진재

의학과
강현식 강현성 방형식 손현주 요정문 정건 이정섭 최준환

간호학과
고영주 고용선 이향란

풍력해양 토목공학전공
강동협

풍력특성화협동과정
홍민호 고지한 김동완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양경이 김강민 강은주

한중과
김애실 장옥연 한윤서

한일과
송병수 김보라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이상현 이은주

상담심리전공
김애경 감미숙 강현순 고경심 고유정 고혜인 김난용 김선희 김영옥 서수열 양윤정 윤금성 이영순 이유진 이재연 장영도 좌영자 홍희정 이상 이용

국어교육전공
김명희 양용준 강순희 강은아

영어교육전공
김미희 송봉주 강영심 고애숙 오민현 이재운

지리교육전공
이승혁 정근오

수학교육전공
고보형 백소영 양운철

생명교육전공
곽재진 구교성

영양교육전공
김자영

체육교육전공
양수연 김현지

미술교육전공
김수연

음악교육전공
조민희 강정운 윤혜림 현민관

초등도덕교육전공
김래영 문유혜

초등국어교육전공
김민경 박미란

초등영어교육전공
김혜영

초등수학교육전공
정희윤 강휘진 김민실 김지향

초등사회과교육전공
강원준 고수선

초등과학교육전공
현종환 김은영 변문희 양지혜 한영재 김지연

초등음악교육전공
김성희 김혜윤 오혜란 최영식

초등미술교육전공
송원준 박신영 김미경 김혜수 신승화 임진미

경영대학원

인사관리전공
강경구 강문성 고창완 김상범 김현웅 이상준 정한준 문경운

마케팅관리전공
김창우 임근영 강명순 김경애 김병효 원미란

유통순
재무관리전공
배형석 오창훈 강내운 김봉석

회계학전공
김형준

관광경영학전공
김나미 김승한 김형수 우정실 이재철

무역학전공
김현민 변경용

경영정보학전공
이성희

관광개발학전공
권영호 김기현 송대경 문용철 김경민 김양희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김인섭 오재환 강대웅 김미령 함천보

지방자치전공
이일권 김옥순 김용범

사회복지전공
강길남 강동우 권은진 김영은 김우겸 김종관 김태훈 남경임 박지원 양경숙 오수선

법학과
고재욱 박영철 윤재두 최성두

산업대학원

원예학전공
오진원

지구해양과학과
고길림

전자공학전공
강종호 김형찬 김기석 김동익

토목공학과
김민철

건축공학과
이강희 김윤희

농업경제학전공
오홍석 유행수

공예디자인전공
김현자 오창림 허희영

풍력공학과
이상규

풍력공학전공
강경택

말산업학과
고창민

기계공학전공
현학삼

토목공학전공
공경일

환경공학전공
오명철 고철주 고택균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강동균 문숙희 박민희

심리치료학과
강수선 김혜은 윤찬희 이정은 진정운 현지윤 홍희림

학사 학위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김재성 박종건 고승관 김지운 박지훈 오승수 김나래 이은경 변미주 강윤정 김예진 김정아 안기경 이민지 시미즈마오

영어영문학과
소동파 강성욱 강나경 한난희 이가영 강진석 현혜진 박치연 한아름 강지원 김현영 양지영 이연수 전해운 이슬이 오정 임령하

독일학과
이상구 임준호 김진근 신익중 장혜윤 정은재 양재연 김보연 이상희 고민영 강수민

일어일문학과
문숙희 박제희 이명기 홍수연 장호진 김수범 문혜원 김수진 김서연 김소라 김주연 장하림 홍란 리웨이 리자웨이 성샤오이 양원

중어중문학과
김현우 정관효 고혁건 김재훈 강금미 김우빈 오지은 윤준보 윤지원 황태건 한정혜 이민경 김연화 고유미 강소영 구보람 안혜정 한미향 고선에 고유빈 양지은 홍명지 김소형

사학과
한대화 홍예진 이충원

사회학과
이병건 김준영 양진혁 박수정 한미숙 천천 한지혜

철학과
박석봉 김호겸 한수민 이수연 이유경

법정대학

법과
김현덕

법학부(야)
고택호 조수혁

법학부 법전공
송창익 임성한 김태훈 강성일 박지혜 양원석 이현호 고경보

언론홍보학과
김성호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박상택 양태준 서의성 이진영 현충묵 김두화 김성국 고동욱 김주현 강정희 김주혜 박형민 오은미 채민리 이윤지 김정현 김욱 지리취안

정치외교학과
김태훈 강건우 김상준 고건우 윤성철 오정선 노태영 문소혜

언론홍보학과
박재홍 부현수 임진범 김정민 김소연 송원준 양승완 강수임 고보경 고수희 박세련 왕사 장카이싱 천진 서결

행정학과(야)
송유나 오동건

경상대학

경영학과
이용범 이원준 배성주 권진우 김성우 김지현 오현도 고승현 문성호 박순태 백기철 이민건 오소미 송주연 김용철 이지예 지승희 이유림 왕리핑 장튀판 장쩌상 김창후 오정민 추한 위안쯔차오

관광경영학과
김덕림 김태욱 신진혁 고대륙 고상효 김시영 양지훈 전명관 현치홍 엄태원 방정화 서유재 홍민진 이재형 임성민 고미영 김진영 김소윤 이보라 김미현 박정아 조윤진 김다영 김미수 안유니 이상희 이정민 장윤준 현미정 현유진 이연진 량안진 장잉 허하오보 애가룡 오화선 이재녕 장내월 림영양 여해밀 왕윙명 장법빈 장준위 주사정 주원원 창한 황측 장야오셴 오단

회계학과
고경환 김재형 김영호 오지는 이정찬 김은수 고민석 김경식 한석원 김수진 김혜진 김선아 전명희 양은영 류칭하오 이목원 쏜차치 강범 장춘루이 김현주 김기욱

무역학과
부지훈 박현기 김경덕 장준혁 권동문 박지영 <5면에 계속>

핵융합 기술로 미래 무한 에너지 개발 꿈꾸다

학술기고 미래의 에너지 핵융합



이 현 주
에너지공학과 교수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공상의 나래를 펼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북두칠성(큰곰자리), 은하수, 견우와 직녀, 저 별은 나의 별 등, 우리를 설레게 하던 별은 어떻게 빛을 낼까? 우리들은 오늘날 별들에서 나오는 빛이 핵융합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소와 수소가 융합하여 보다 무거운 원소인 헬륨으로 바뀔 때,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인 $E=mc^2$ 에 따라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다. 그 결과 태양의 경우 매초 약 $4 \times 10^{26}W$ 라는 막대한 열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대부분 태양광에 기원을 두고 있다. 예외인 경우가 원자력이나 조력, 지열 정도일 것이다. 화석연료 가운데 석탄은 식물이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으로 만들어 놓은 탄화수소 가운데 주로 탄소가 남은 것이고, 석유는 유공충이 합성한 탄화수소가 남아있는 것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수력발전에 쓰이는 물은 태양열에 의해 증발된 수증기가 비로 응축되어 내린 것이고, 바람은 태양광에 의해 덥혀진 공기가 상승하여 기압이 낮아진 부분에 주변의 공기가 밀려들어 생기는 것이다. 태양광, 태양열 발전은 말할 것도 없다.

◇에너지 소비의 급격한 증가

인류는 수억 년에 걸쳐 저장된 에너지인 화석연료를 산업혁명 이후 수백 년 만에 거의 바닥이 나도록 평평 써오고 있다. 예전에는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나 타던 것이 네 마리의 말이 끄는 4두 마차인데 그 에너지가 4마력이다. 오늘날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엔진이 150 마력 정도의 힘을 낸다. 이렇게 많은 양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화석 연료의 과다한 소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켜 지구온난화라는 환경재앙을 일으킨다. 또한 남아 있는 에너지 자원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수차례의 석유 파동에서 겪은 바와 같이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크게 비싸졌고, 중동에서의 잦은 분쟁은 석유 자원을 둘러싼 이권다툼이 중심이다. 뿐만 아니라 1~2백년이라는 가까운 장래에 화석연료가 고갈될 것이 확실 시되고 있다. 중국, 인도, 아프리카의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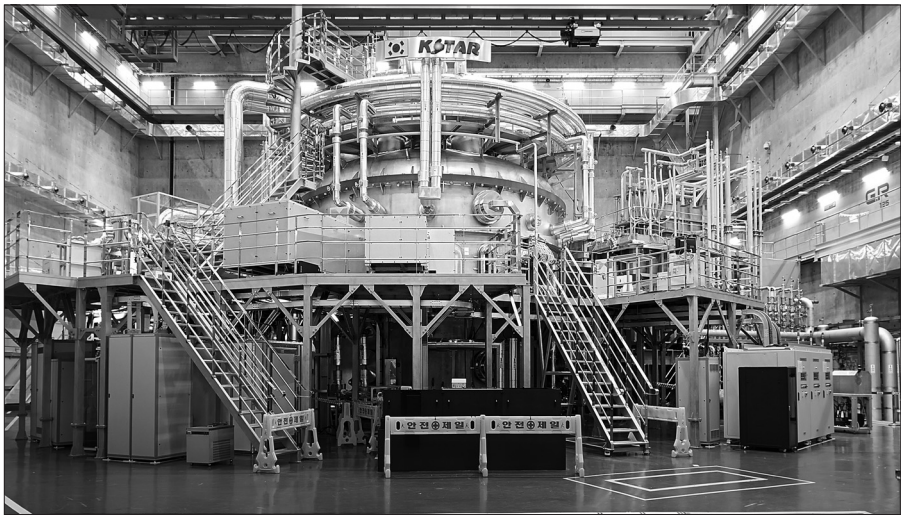
나라처럼 그동안 에너지를 적게 사용해 오던 저개발국들이 경제성장을 이루며 에너지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이러한 추세는 가속이 되고 있다.

◇화석연료 고갈문제 해결 방책

큰일이 났다. 화석연료가 고갈되면 에너지 대량소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의 편리한 삶은 어떻게 될까? 다시 중세 이전의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던 불편한 시대로 돌아가야 하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책이 생각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원자력발전이다. 그러나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력발전은 방사선 폐기물 문제 이외에도 연료인 우라늄 자원 역시 1~2백년 사용할 양 밖에 없다. 연료 재처리가 필요한 고속중식로를 사용하여 지금은 버려지는 우라늄-238까지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10배 정도 기간을 늘릴 수 있을 뿐이다. 하나의 대안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태양열 발전들이다.

이들의 문제점은 에너지의 밀도가 낮고 전기로 바뀌는 효율이 낮다는 것이다. 풍력발전의 비용은 석탄 혹은 원자력발전에 비해 대략 5배 이상, 태양광 발전 비용은 10배 이상으로 높다. 우리 학교 건물의 옥상마다 설치된 태양광 발전장치의 시설용량이 1MW인데 야간이나 흐린 날 등으로 인해 실제 발전량은 이보다 훨씬 적다. 원자력발전소 혹은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이 약 1,000MW임을 생각하면 같은 발전량을 얻기 위해 우리 학교 옥상 면적의 수천 배의 넓이가 필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 없이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핵융합발전이다. 수소(혹은 수소의 동위원소)와 수소(혹은 수소의 동위원소)를 융합시키면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나 태양과 같은 별에서는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을 지구 상에서 일으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수소에는 양의 전하를 띤 양성자들이 들어있어 그들을 가까이 가져가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전기적인 힘을 이기고 10~15 m 이내로 핵들이 가까워져야 비로소 '핵력'이라는 결합의 힘이 작용하여 융합이 일어난다. 태양에서는 막대한 중력이 핵들을 가까이 밀어 부치는 힘으로 작용하여 융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1억도 이상의 온도로 핵을 가열하여 높은 열운동 에너지에 의해 핵들이 전기적인 반발력을 이기고 가까이하게 하든지 아니면 높은 운동량을 외부에서 주어 핵들을 가까이 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독자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핵융합연구장치 KSTAR 주장치.

아! 지구 상에서도 핵융합을 인공적으로 일으켜 큰 에너지를 얻은 적이 있다. 1848년 비키니 섬에서 처음 폭발실험이 이루어진 수소폭탄이 바로 핵융합을 이용한 것이다. 수소폭탄은 원자탄을 먼저 터뜨려 그 열과 운동량을 이용하여 수소의 핵융합을 초래하고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원자로를 먼저 만들고 나중 원자폭탄이 만들어 졌다. 그래서 핵융합연구의 초기에는 이미 순간적 반응에 성공한 핵융합에너지를 서서히 방출하는 노를 만드는 것이 쉬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아직도 핵융합의 실용화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서서히 핵융합이 일어나게 하려면 1억도 이상으로 가열된 수소핵들을 서로 반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그릇도 이러한 고온의 물질을 담아둘 수 없다. 다행히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는 모든 물질이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를 잃고 전하를 띤 이온과 떨어져 나온 전자로 구성된 '플라즈마'라는 상태로 바뀐다. 전하를 지닌 것들은 전기적 혹은 자기적 힘에 의해 제어가 가능하다. 전자기장이 자력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이용하여 고온의 플라즈마를 자력선으로 만든 그릇에 가두는 것이 자장구속형 핵융합장치이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강력한 레이저광을 여러 방향에서 mm 크기의 수소의 동위원소가 담긴 공에 쏘여서 빛의 운동량에 의해 압축이 일어나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런 방식을 관성구속형 핵융합장치라 한다.

◇자장구속형 핵융합장치

오늘날 자장구속형 핵융합장치가 연구의 대세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핵융합연구소에 'KSTAR'라는 세계 최초의 초전도 핵융합장치를 만들기 시작했고 현재 완공되어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가 공동으로 'ITER'라는 핵융합장치를 프랑스의 카다라쉐에 건설하고 있는데, 2020년대에 운전

이 시작될 이 장치는 들어간 에너지의 10배에 해당하는 핵융합 에너지를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핵융합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반응이 가장 쉬운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중수소는 수소에 0.015%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140경으로 추정되는 바다의 물이 모두 H2O로 이루어져 있어 분자 하나 당 2개의 수소원자가 들어있는 것을 생각하면 막대한 양이 된다. 삼중수소는 자연계에는 거의 없는데 리튬에 중성자를 흡수시켜 만들 수 있다. 지상에는 수천만 t의 리튬자원이 남미의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또 바다에 수산화 리튬의 형태로 녹아있는 리튬의 양이 2,000억 t 이상으로 추정되어 그 자원의 양으로 보면 엄청난 에너지의 생산이 가능하다.

나이가 차후 중수소만으로 핵융합이 가능해 지면 인류가 현재와 같이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수 백만년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물이 어디에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불필요해질 것이다. 또한 핵융합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방출이 없다. 핵융합로는 만 분의 1기압 정도로 낮은 압력에서 운전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로 벽이 깨지면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고 온도가 급격히 냉각되어 핵융합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커다란 사고로 이어진 원자로에 비추어 자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치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꿈의 에너지라 할 핵융합을 지상에서 실현하기 위해 세계의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땀 흘려 노력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ITER(미국,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의 공동협력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 연구 프로젝트) 이후의 상업적 발전장치의 모델이 될 핵융합 Demo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K-DEMO라는 장치를 구상하는 중이다. 우리는 인류가 에너지의 문제를 완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도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관하고 싶은 책

가치 불감증 해결 위한 '사유의 혁명'

책인의 원칙

한스 요나스(이진우 옮김) | 서광사 | 11만8000원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주 회자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는 '안전 불감증'이다. 세월호 사건은 물론이고 요양원 화재 사건, 서울 지하철 사고 등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었고, 묵하 이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 중이다. 하지만 나는 안전 불감증보다 더 깊은 문제는 가치 불감증이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건 사고들의 근원적 원인을 파헤쳐보면 거기엔 한결같이 이윤을 절대시하는 가치관이 깔려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윤 앞에선 그 어떤 가치도 맥을 못춘다. 수확이 행단 학생들의 생명도, 노인들의 생명도, 승객들의 안전도 이윤 앞에선 그 우선순위를 내주고 말았다. 돈이 목적이었고, 그밖의 모든 것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가치 불감증, 도덕 불감증이 우리사회를 위험사회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 또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의 땅으로 변해버린 그 광경을 지켜보고도 우리는 여전히 원전을 장려하고 있고 심지어 원전 수출 실적을 자랑삼아 떠들어대고 있는 실정이다. 먼 데까지 갈 것 없이 제주의 환경을 망쳐놓아도 환경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의 해안, 중산간 어느 곳을 막론하고 경치가 쾌관하고 여겨지는 지역은 예외없이 개발의 마수가 뻗는다. 국내 자본도 모자라 중국 자본까지 끌어들여 천혜의 제주 자연은 더 이상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속적으로 파괴쳐지고 있다. 여기에도 예외없이 이윤=목적, 환경=수단이라는 가치 불감증, 환경 불감증이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환경 불감증을 어떻게 치유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과 같은 안전 불감증을 치유하는 데는 책임자 처벌, 국가제도 정비, 안전에 대한 훈련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환경 불감증을 치유하는 데는 묘안 마련이 어렵다. 환경문제는 세월호 사건과 같이 검증 가능한 수치로 그 피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는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만큼 시공을 초월하기에 예측 불허의



파급효과를 초래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을 놓고 난감해하던 생각의 끝자락에서 나를 구원해준 것은 바로 한스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이었다.

한스 요나스는 환경 불감증을 해결하기 위한 묘안으로 '사유의 혁명'을 제시한다. 사유의 혁명이 없이는 현재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그는 단언한다.

그가 말하는 사유의 혁명은 크게 두 가지를 타깃으로 한다. 하나는 기술적 접근 방식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기술 덕분이고, 그 과정에서 초래된 환경파괴는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대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경파괴를 오직 기술적 문제로만 파악하는 근대적 사고방식은 속으로 굶아드는 환경문제를 계속 덧나게 할 뿐이다.

두번째는 책임에 대한 사유 혁명이다. 요나스가 말하는 책임은 일상적 의미에서의 책임과는 완전히 다르다. 보통 책임이라는 개념이 거론되는 경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 그에 대한 보상이 문제 될 때이다. 책임은 과거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처벌이라는 맥락에서 말해진다. 이에 대해 요나스가 구축하려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개념이다. 문제는 책임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데 요나스의 책임 개념에선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요나스는 책임 개념에 대한 독특한 분석을 통하여 상호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책임 또한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예로써 요나스는 운전수와 승객의 경우를 든다. 승객의 안전과 생명은 전적으로 운전수에게 맡겨져 있는 만큼 운전수는 승객에 대한 무조건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에도 이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성립한다. 미래세대가 생존할 수 있을지의 여부, 또 어떤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지의 여부는 현재세대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환경문제에 관해 고만해본 적이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이라면 『책임의 원칙』을 통해 좀 더 깊은 생태학적 사유로 빠져들기를 강권하는 바이다.

김일평 일반사회교육전공 교수

<4면에서 계속>

신호원 태경환 홍한을 허재성 객체영 이현하 허성인 쏜웨이 천자웨이 평가이 오성개 등단 장월명

경제학과
우상이 고창환 김대웅 오승철 오준혁 이기관 김동현 오재근 양승훈 박진 김지운 재지혁 루루 허천루이

관광개발학과
고경민 김민규 이상수 강우석 오준혁 김병철 김하정 김미경 김승이 강은숙 진용석 오정

경영정보학과
김세창 홍성준 이등한 부은철 오유지 반균철 여오안 조비 탕민훈

경영학과(야)
조수영 최준식 이혜수 전지수 진성수 김영진

관광경영학과(야)
전문경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강수민 강희에 문연지 오주경 우소영

영어교육과
문지는 유나영 김이슬 윤소원 조푸름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김민권 현수성 김미림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김권호 김주현 장혜진

윤리교육과
이은혜

수학교육과
김현수 성진혁 양승주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전공
문숙연

과학교육과 생물교육전공
문영심 김선정 조은수

컴퓨터교육과
부철민 홍창준 김수연 홍정모 김정은 고윤경 김하림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 식물자원환경전공
고성원 강현승 공민희 이한희

생물산업학부 원예환경전공
고진섭 김민규 이태호 오창협 강해미 박수연 장한

생물산업학부 동물자원과학과
고민훈

생명공학부 응용생명공학과
권석훈 정재호 좌지영 김지혜

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공학전공

현혁 김중규 오영래 한재원

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김제식 김현아 이루다 고수연 강예슬

산업응용경제학과
김수범 윤솔비 이동진 김진희

해양과학대학

해양의생명과학부 해양생명과학전공
오준호 창세리

해양의생명과학부 수산생명과학전공
김기철 김도균 이승현 이창덕 강유리

해양산업절차학과
김범수 권우성 오진호 박상혁 이종환 김민범 윤현아 한민수 양동훈 김성원

지구해양과학과
강재선 고원혁 김동영 이현석 이요한 김승환

환경공학과
오명제 윤현호 조윤 홍성준 양지훈 현웅준 윤해경 홍은주

토목공학과
오성민 고병철 이상헌 이상호 한수동 황재웅 황태윤

해양과학부 해양생산과학과
김유라

해양과학부 토목환경전공과

최지현 최지혜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김재은

생물학과
김신아 강은호 천수미 현서정

화학과
임대성 이재운 임기홍 김지연 이라겸

식품영양학과
임영혜 유금룡 김예진

수학과
양경준 고광훈 송태우 오현석 강민호 박보희 신소이 고요리 이현주

전산통계학과
강경진 양진원 오경관 고민범 김태훈 김한섭 허성구 김해리 박소연 김다슬 최윤정

가정관리학과
김경아

생활환경복지학부 주거·가족복지전공
양지혜 정지애

의류학과
임수경 고영순 강한애

체육학부 레저스포츠전공
이동규 임태희

공과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이윤재 원진성 김영근 김보겸 김태현 양현주 윤이 앙글라라 김유경 김혜진

기계시스템공학부 기계공학과
홍성민 강원탁 고서진

기계시스템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김성원 고은형 박성우 오용덕 이진우

통신공학과
강경수 고정혁 김동완 김동영 박남형 좌기택 고대혁 고유범 김성관 오영욱 정홍기

에너지공학과
김동현 임준범 김원식 박한배 양재성 김성대 유재민 이주원

컴퓨터공학과
김태현 양경도 김성진 신용재 박홍강 문아람 이석준 강신혜 이상용

전자공학과
송승인 문용주 박동진 좌승문 홍용진 이기훈 이상호 홍승한

전기공학과
양준범 윤진섭 김민경 이승준 이웅준 한승호 고광림

생명화학공학과
김욱 고준혁 김대석 고문수 김보미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김문수 류소이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채지연 김나인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초등실과교육전공
이희연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오승실 송수는 이주환

미술학부 서양화전공
고창균 김현미 안지현

미술학부 조소전공
김윤진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진형래 현승희 김동연

음악학부 성악전공
임수지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김규택 이상신

박사 32명
석사 227명

학사 535명

총 794명

제주의 美와 미래를 책임지는 ‘제주발담’

기고 ‘제주발담’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의미와 향후 과제



강 승 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전통적 농업제도, 생물다양성, 문화·경관적 다양성 등이 부적절한 개발전략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하에 2002년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GIAHS)를 도입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세계중요농업유산(이하 세계농업유산)은 농업유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그 지역의 사회나 환경에 적응하면서 몇 세기에 걸쳐 발달하고 형성되어 온 농업적 토지 이용, 전통적 농업과 관련되어 형성된 문화와 경관, 생물다양성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차세대 계승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의 유산 제도는 ▷ 유네스코(UNESCO)의 세계유산(자연, 문화, 복합)과 습지보호를 위한 람사르협약 ▷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 크게 세 분류가 있다. 세계농업유산은 농업활동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 안전한 식량공급, 지역사회 유지 등의 기능을 지닌 농업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성 때문에 농업유산제도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4월 현재 12개국에 27개 지역이 GIAHS로 선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주발담 농업시스템’과 ‘청산도 구들장논’이 지정됐다. (중국 8, 일본 5, 인도 3, 한국 2, 필리핀 1, 아프리카 6, 남아메리카 2)

◇‘제주발담’의 생성과정과 구조적 특성

제주발담은 개간과정에서 나온 돌을 이용, 바둑과 토양관리를 위하여 조성됐다. 화산섬 제주의 농경지는 대부분 현무암 ‘돌밭’이며 개간을 위해서는 돌을 캐내어 쌓아두어야 한다. 표토층이 가벼워 비바람에 돌이 드러나므로 계속 치워야 하는데 이로 인해 돌무더기인 ‘머들’이 형성됐다. 그리고 이러한 돌을 활용하여 강한 바람을 막고 화산회토 토양을 관리하기 위해 발담을 쌓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농작물과 토양 관리 기능에 경계용 기능이 추가되면서 1천여 년이 흘러 검은색 현무암으로 ‘제주발담’형성됐는데, 이러한 발담은 열악한 환경에 웅전하며 제주농업의 차원을 크게 바꾸어 놓은 일대혁명이라 할 수 있다.

제주발담의 구조적 특성을 보면, 농경지에서 나온 돌과 인근의 돌을 이용하여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쌓아져 왔다. 제주발담은 대부분 기공이 많은 현무암을 이용하고, 모서리가 비교적 둥근 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틈새가 많이 생겨난다. 그 틈새가 바람구멍 역할을 하여 강한 바람에도 잘 견디내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밀밭 두 개 사이에 윗돌을 올리는 형태로 층층이 축조하거나 밀들과 윗돌 사이의 틈새를 경우 자갈을 이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제주발담은 1천여 년 넘게 지탱해온 것이다. 그리고 농경지 간에도 끊어짐이 없이 발담을 잇대어 쌓아 축조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22,108km의 ‘흑룡만리’ 발담이 형성되었다. 즉, 제주발담이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무너지지 않고 보존되어 온 이유는 현무암에 있는 기공, 유선형 광의 핵심코드로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관광, 농촌관광, 체험관광의 주요한 테마로 주목받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발담의 중요성과 가치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보존·관리·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주발담 농업시스템’의 세계농업유산(GIAHS) 등재 의미

먼저, 제주발담이 세계농업유산



셋노렇게 민개한 유채꽃틀로 둘러싸인 ‘제주발담’.

(GIAHS)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제주발담과 관련된 농업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그 차별성과 규모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 차원에서 보면, 유네스코 자연과 학분야 3관왕에다 인문분야에서는 최초로 FAO 농업분야까지 세계유산으로 지정됨으로써 세계적으로 유일한 4관왕 지역이라는 쾌거를 이룬 셈이다.

이는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인 것이다. 제주도민 차원에서는 자전에 갈려 있어서 그 중요성을 몰랐던 제주발담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와 더불어 자존만대에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가 됐다.

제주발담은 열악한 제주 농업을 지켜온 버팀목으로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농업적 가치 이외에도 제주의 미학을 대표하는 빼어난 문화경관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안가에서부터 중산간까지 제주섬을 떠처럼 두르고 있는 제주발담은 중산간지대의 난개발을 막는 장치 역할뿐만 아니라, 제주농업 유지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역할을 해 왔다. 또한, 제주발담은 제주 미래관광의 핵심코드로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관광, 농촌관광, 체험관광의 주요한 테마로 주목받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발담의 중요성과 가치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보존·관리·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주발담’의 세계농업유산 등재는 지난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과 2011년 세계7대자연경관지 선정에 이어 제주도의 브랜드가치를 가일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농업유산 ‘제주발담’의 향후 과제

그리고 앞서 언급한 다양한 가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도 제주발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협조·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세계농업유산 제주발담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과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태면,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FAO에 제출했던 동적 보존·관리계획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제주발담의 지속가능시스템 구축을 위해 3대 과제를 ①발담가치 인식 확산 ②자발적 참여 동기 부여 및 인센티브 ③제도적 지원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들 과제를 중심으로 6대전략인 ①발담 보존 위한 거점 육성 ②발담 보존 자원지원 조직화 ③전략적 홍보 전개 ④직접지원제도 구축 ⑤발담 정보기반 구축 ⑥성과평가체계 확립 등이 중·장기적으로 체계화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라초대석 〈7〉 강은희 진영마트 대표

나눔 통해 더불어 사는 즐거움 느껴

‘나누다’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른다는 말이다. 하나를 나누고, 두 개를 다시 네 개로 나눌수록 점차 그 수는 늘어난다. 최근에 시달리는 제주를 구미리로 구원한 제주여성 김만덕처럼 새롭게 나눔의 문화를 뿌리내리고 싶다고 말하는 강은희 진영마트 대표를 만났다.

“제가 뭐 특별한 구석이 있어서 나눔을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전 지극히 평범한 집안의 셋째 딸일 뿐이었죠.”

이런 강 대표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생 시절이었다.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에 1983년도에 입학한 그녀는 첫 학기부터 학과 수석의 성적을 거뒀고,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그 당시의 장학금은 저에게 ‘목마른 마라토너가 받은 물’과 같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다짐했어요. 지금 내가 받은 이 도움을 언젠가 이 이상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그녀는 7년간의 교직생활을 뒤로한 채 인생의 2막을 열었다. 남편과 함께 고향인 제주도로 향했고 유통업을 시작했다.

거대한 자본도, 풍부한 경험도 없이 강 대표의 열기 하나만으로 시작한 유통업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대형마트들이 입점이 시작됐지만 어려울수록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강 대표는 원칙을 세웠다. 직원들의 주말 휴가를 보장하면서도 자신은 주말에도 업무를 맡아 오너의 성실함을 몸소 보였다.

뿐만 아니라 거래처를 배려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통업계의 관행상 대리점으로부터 물건을 받으면 결제를 장기유예로 주는 경우가 빈번했던 시기에 대금 일시불 결제라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매입단가를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대형마트 사이에서 살아남는 하나의 방안이 됐다.

“최초로 용담점을 연 이후 외도점, 서



강은희 대표(왼쪽)와 아너 소사이어티 마크.

사라점으로 규모를 점차 확장시킬 수 있었어요. 자리가 안정적으로 잡힌 이후 이제 때가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트 업계에서 큰 손으로 자리 잡은 이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나눔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모교인 제주 중앙여자고등학교에 ‘강은희 장학금’을 만든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어 제주대학교에 매년 2천만원씩의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해외 최빈국 아이들에게 후원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제주도 여성 최초로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렸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기부 문화가 정착하지 못했어요. 선진국의 국민들에게 기부는 생활화됐지만 한국에선 기부가 ‘튀는’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녀는 선진국형 기부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선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굳이 큰 금액을 기부하지 않아도 작은 나눔, 쉬운 기부를 통해 보편적인 시선으로 기부를 바라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대표가 말하는 인생 3막은 지금까지의 기부를 유지하고,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 말했다. 한 사람이 모두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명에게 나누는 철칙으로 그녀는 베풀을 행하고 있다.

“나눔을 주는 것을 기억하긴 어려워도 나눔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평생 기억합니다. 언젠가 내가 받은 이 도움을 남에게 베풀자는 마음을 갖게 되죠. 제주도를 넘어 한국 사회 모든 곳에 나눔의 미학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수빈 기자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키워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도전하기

황 현 희 / 개그맨

고등학교까지 꿈이 없었다. 목표 없이 점수에 맞춰 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글쓰기를 즐겼다. 우연히 한 극단이 개그 대본을 공모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응모했는데, 놀랍게도 단번에 합격했다. 자연스레 연극 작가가 활동하게 됐다. 운명의 전환점은 이 때 찾아왔다. 주연배우 한 명이 갑자기 맹장염에 걸려서 무대에 설 수 없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올랐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심지어 공연이 끝나고 여성 팬들이 꽃다발까지 선물했다. 인생의 결정적 순간은 이렇게 찾아왔다. 무대의 맛을 본 뒤 개그맨으로서의 꿈을 키웠고, 2004년 KBS 공채로 데뷔했다.

◇더 겸손하고 더 노력하라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꿈을 미리 정해놓으면 그 부분만 신경 쓰고 다른 문은 닫아버리게 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자신의 적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개그맨이 된 후, 유세운, 강유미, 안영미, 장동민 등 동기들은 모두 인기가 좋지만 유독 나만 무명에 가까웠다. 특히 유세운은 개그맨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다.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내가 아는 사람 중 유세운이 가장 운이 좋다. 그 역시 일을 즐기면서 하는 편인데 시작부터 ‘복학생’ 캐릭터로 일찌감치 스타가 됐다. 나도 개그맨이 되겠다는 목표는 있었지만 그 다음 목표를 잡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었다. 무엇인가 목표를 먼저 세워놓고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을 얻는다. 그런데 거기에만 빠져있으면 또 다른 목표를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없다. 급변하는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자”

잡기가 힘들다. 한 가지 목표를 이뤘을 때 다음 목표를 이를 생각을 하고 전진해야지 그 성공에 도취해서 만족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서 만개그콘서트의 ‘범퍼의 재구성’이란 코드가 대박을 쳤다. 오랫동안 활동했던 ‘개그콘서트’의 인기 비결은 ‘넓은 인프라’이다. 개그콘서트는 이미 훌륭한 시스템과 체계가 잡혀있다. 이에 더해 개그맨 수가 늘어나 다양한 개그를 선보일 수 있어 대박의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다. 또 구성된 간 공동체의 식이 강한 것 역시 개콘을 1등으로 만들고 있다. 개콘에서는 자신만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개콘의 1등 비결이다. 이제는 케이발방송의 프로그램으로 소속을 옮겨 6개월 만에 공개 코미디 무대에 복귀했다. 안영미와 함께 새 코너 ‘내 마음

이 들리니’를 선보였다. 새 코너는 남녀 사이의 연애심리를 알아보는 형식이다. 앞으로 개그맨의 영역만이 아니라 활동환경을 전방위적으로 넓힌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자만하지 말고 위기의식 갖자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정말 재미가 있다. 무엇인가 하나를 이루면 또 하나는 망각하게 된다.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초심을 잃은 순간이 있었다. 자만심에 빠져 음주운전을 했다. 3개월간 방송 출연정지를 받아 다양한 계약들이 취소되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와 함께 중요한 것들을 망쳐버리게 됐다. 회사를 그만두는 정상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자기만족은 실패를 낳고 지름길의 곁길을 벗지 못하게 한다. 이 일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이후 마음을 다잡고 ‘불편한 진실’이라는 코너로 재기에 성공했다. 개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항상 주변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 영화를 보더라도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의 표정, 행동까지 지켜보는 버릇이 있다.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되새긴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 하나 하나가 아이디어의 원동력이 됐다.

이제는 자만하지 말고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하고 있다. 나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 누구나 좋은 일이 생기면 자만하게 되고 기세등등하고 주변이 안 보이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또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외부환경은 계절의 변화처럼 늘 바뀌어 왔다.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없다. 급변하는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자. 어떠한 환경에서도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다음 목표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다.

정용복 팀장

스피치, 골든벨을 울려라

김 현 옥 / 아나운서

2000년 KBS 공채 26기 아나운서로 데뷔했다. 최근에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스피치 교육 전도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말을 잘하면 못사람의 존경을 받는 시대이다. 이에 반해 제아무리 박학다식하다 하더라도 말이 서투른 사람은 평가절하되기 십상이다.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래서 논리적 말하기 능력은 핵심경쟁력이다.

◇스피치 능력을 키워라

TV를 보면서 ‘여휴 저 사람처럼 말을 깔끔하게 잘하고 싶는데’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발표에는 자신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발표를 하는 것과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보다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스피치 기술을 배워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3요소인 화자, 콘텐츠, 청자 중 청자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필요하다. 청자가 달라질 때 마다 적절하게 그들을 고려하고 배려해야 한다. 말을 잘하려면 논리적인 사고력도 중요하다.

화자가 아무리 박식하고 달변가라 할지라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100% 실패한다. 따라서 화자는 항상 남들 앞에 서기 전에 내 말을 들어 줄 청자는 누구이며,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이며, 어떤 내용과 순서로 구성·전개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 상황에 따라 청중의 반응을 읽어가며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말투는 인성과 태도, 가치관 등을 드러내기 때문에 단순한 말버릇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말투는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여유를 보여야 한다. 많은 분들이 중요성을 간과한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은 청자가 기분 나쁘게 들리고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B라는 사람은 그 사람 참 관참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말을 함에 있어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그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이 시선의 각도는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한다. 주변 사람의 의견이나 자신의 모습을 비디오풀로 촬영해서 한번 관찰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2인 이상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역시 그 청자들을 골고루 바라봐야 한다. 이처럼 말의 표현에서 비언어적인 요소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말하기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작은 요소들을 꾸준히 훈련을 통해 나가면 반드시 좋은 경험이 된다.

‘역지사지’의 자세도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 청자와 화자 역할을 오가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화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청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언제나 상대방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 청자의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서로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말투는 자아의 노출

많이 아는 것과 풀어서 쉽게 설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인정하고 청자를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 나를 맞춰야 한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속 언어 습관이 중요하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분위기로 말을 하고 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말투나 말씨가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말씨가 첫인상만큼이나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말투는 한 사람의 인성, 태도, 가치관 등을 드러내기 때문에 단순한 말버릇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말투는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물이어서 한 사람의 인성을 고스란히 반영하며 자신이 살아온 길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원론적으로 평상시에 바른 말, 고운 말을 제대로 할 때 이 사람의 인성이 돋보이게 된다. 백 미터 달리기를 잘하려면 꾸준한 발목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모두 갖추어 적절한 사용해야 한다.

스피치는 자신감의 전제조건이다. 발표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게 된다. 발표력이 뛰어난 사람은 무엇을 하든 자신이 있다는 태도로 접근한다. 이런 차이는 일을 하는 태도의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의 결과로 이어지며 결국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영역을 키워나가야 한다.

정용복 팀장

》아라봉사단 소록도 봉사활동 취재기

“한센인 도우며 봉사의 참뜻 느꼈어요”

어린 사슴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소록도. 아픈드리 소나무가 일렬로 서있고 그 사이 사이로 보이는 바다경관이 휴양지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하지만 이 섬에는 한센인들의 아픔과 삶의 애환이 어려 있다.

‘소록도 환자들은 세 번 죽는다’는 말이 있다. 한 번은 한센병 발병, 두 번은 죽은 후 시체해부, 세 번은 화장이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총독부가 한센병이 전염된다는 이유로 한센인들을 소록도에 강제 격리시켰다. 격리된 후 한센인들은 강제노역, 단종수술, 감금, 체벌 등 무차별적으로 인권유린을 당했다. 임신을 한 여자의 경우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총독부사람들이 약을 사용해 아이를 낙태시켰다. 겨우 임신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낳더라도 전염을 우려해 아이들은 보육소에 맡겨져 부모들과 따로 살아야 했다.

강제 생체실험도 시행돼 한센인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주사를 맞고 죽으면 해부를 당했다.

이와 같은 아픈 역사를 지닌 소록도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기 위해 교직원 4명, 학생 16명으로 구성된 아라봉사단이 7월 18일부터 사흘간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소록도의 아침

소록도는 아침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4시이지만 환자들의 아침준비를 위해 소록도병원의 불이 하나둘씩 켜졌다. 가장 바쁠 때인 식사시간. 모든 봉사자들이 환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다.

아침 식사 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기저귀를 갈아야 했다. 봉사단은 두 명이조를 이뤄 기저귀를 교체했다. 하지만 봉사단은 요령이 없어 장갑이 기저귀에 붙거나 기저귀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실수가 잦았다. 서투른 이들의 손길에 환자들은 화를 내기 일쑤였다.

소리를 듣고 온 간호사는 “한센병 환자들은 피부와 근육이 약해서 자칫 세계 잡았다가는 피부가 벗겨지거나 뼈가 부러질 수 있다”며 “환자분들마다 체형이 달라 기저귀를 그에 맞춰 주어야 한다”고 봉사자들에게 당부했다.

나균이 떠나 근육에 침투하면 신체의 일부가 괴사해 몸이 변형되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들마다 체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기저귀를 갈아준 후에는 물을 배급했다. 환자들마다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마시는 게 달랐다. 컵의 손잡이를 잡을 수 없는 환자들은 젓병을 사용했다. 홍희숙(의류학과 교수) 학생부처장은 종이에 환자들의 상태와 필요한 것을 써서 조끼주머니에 넣고 다녔

다. 모든 환자들의 것을 외울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이기 위함이라 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식전에 물을 드시기 때문에 시간에 맞추려면 종이에 적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메모를 했다고 말했다.

식사 시간에는 환자 한명 한명마다 봉사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 손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구강염태가 일그러져 온전한 치아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환자는 죽을 먹었다. 손이 없고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들은 봉사자들이 음식을 일일이 떠먹여 줬다. 뿐만 아니라 나균이 척추에 침투해 허리가 뒤틀려 혼자 앉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침대 등받이에 기댈 수 있게 하거나 뒤틀림이 심할 경우에는 봉사자가 한손으로 환자의 몸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음식을 떠줘야 했다.

김한열(생물학과 3)씨는 “내가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한 행동들이 다른 어떤 이들에겐 너무나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내가 대신 손과 발이 되어 도와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식사시간이 끝나고 환자들의 치료가 시작됐다. 간호사들이 피부에 진물이나 피가 나지 않는지 환자 한명 한명씩 살펴보고 아픈 곳이 없는지 물어봤다. 보통은 간호사 혼자 치료를 하거나 필요할 경우 봉사자들이 옆에서 보조를 맞춰주는데 한 할머니는 네 사람이나 동원됐다. 이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피부를 계속 긁어 피부병이 악화돼 독한 약을 처방했다고 했다. 독한 피부약 안에 들어있는 졸린 성분 때문에 할머니는 졸려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였고 간호사들은 옷을 벗기는 데 애를 먹었다. 네 사람이나 동원돼 할머니의 치료를 도왔다. 봉사자들과 힘을 합쳐 옷을 벗긴 후 몸을 보니 얼마나 굵었는지 온몸이 피와 진물로 범벅이었다. 상처를 치료하고 붕대를 감고 나서야 간호사와 봉사자들은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병동이 한가로운 오후 시간대에는 봉사자가 환자의 말벗이 되어 무료함을 달래줬다.

홍경미(간호학과 3)씨는 일을 할 땐 할머니를 위해서 성경책을 읽어줬다. 교회의 장로였던 할아버지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성경책을 읽었다. 하지만 한센병이 발병해 시력을 잃은 후에는 더 이상 읽을 수 없다고 했다.

홍경미씨는 “눈이 보이지 않아 병실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는 환자분들이 많다”며 “그런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서 책을 읽어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셨다”고 기뻐했다.

김유나(초등과학교육전공 4)씨는 장갑도 끼지 않고 복도에 나와 앉아 계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의 손이 왜 이렇게 차나며 자신의 손이 따뜻하니까 데워드



리겠다고 하면서 할머니의 손을 비볐다. 할머니도 그 따뜻한 손이 좋았던 건지 한동안 꼭 잡고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매일 아침부터 잠결에 장갑의 부스럭 거리는 소리를 듣고 땀 뻘뻘 비닐의 감촉을 느끼셨던 것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다”며 “조금이라도 온기를 더 전해주고 싶어서 맨손으로 손을 잡았다”고 말했다.

오후에 날씨가 좋아 간호사가 봉사단에게 환자분들을 데리고 밖으로 산책을 하는 게 어떨겠느냐고 물어봤다. 이 말을 들은 환자들 어서 빨리 자신들의 휠체어를 갖고 오라고 보냈다. 하지만 모두가 산책을 가기에 인력이 부족해 환자들 중에서 일부만 외출할 수 있었다. 한 할아버지는 자신은 햇빛과 바람이 정말 좋다고 시력을 잃기 전에 본 맑은 하늘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지금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때를 기억하며 햇빛과 바람을 맞으면 정말 자신이 맑은 하늘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마을봉사의 기회

나균이 몸에 많이 침투하지 않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신 분들은 마을에 거주하고 병세가 악화돼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분들은 병동에 입원한다.

마을봉사는 평일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 봉사를 하는 아라봉사단은 마을봉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우연히 마을봉사를 할 기회가 찾아왔다. 아침 봉사를 끝내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잡초에 범벅이 된 채 경운기에서 내리시더니 봉사단을 다급하게 불렀다. 잡초를 베고 벤 것을 수레에 옮겨야 하는데 자신이 혼자하기엔 너무 벅하다는 것이었다. 마침 시간이 좀 남아서 봉사단은 흔쾌히 도와드리러 갔다. 할아버지의 집은 병동과 가까



김한열(생물학과 3)씨가 환자에게 음식을 떠 먹이고 있다(위). 홍경미(간호학과 3)씨가 앞이 안 보이는 환자에게 성경책을 읽어주고 있다(아래).

운 곳에 위치했다. 꽤 큰 면적의 마당에 잡초가 수북히 쌓여있었다. 잡초제거 도구가 하나밖에 없어 한 명은 잡초를 제거하고 봉사단은 베어진 잡초를 맨손으로 잡아 수레에 옮겨 담았다. 잡초의 양이 예상외로 많아 1시간여 도와드렸지만 일을 채 끝내지 못하고 돌아왔다.

21일 아침 봉사를 끝으로 3박4일 간 아라봉사단의 봉사가 마무리됐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에게 경이 많이 들었는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학생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한 할머니는 제주도에서 우리를 위해 힘들게 왔는데 줄 게 커피밖에 없다면 봉사단에게 커피믹스를 줘야겠다. 환자들의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며 아라봉사단은 소록도와 아쉬운 작별을 했다.

김지현(간호학과 2)씨는 “소록도에 있는분들과 지내면서 외적인 모습을 떠나 내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았다”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돌아오는 배 안에서 봉사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봉사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치유를 받고 왔다”였다. 비록 과거에 아픈 시절이 있었지만 작은 도움에 고마워하는 한센인들을 보며 자신들도 조그만 것에도 행복을 찾게 됐다고 했다. 강서윤 기자

》기고 - 박형철 국립소록도병원장

사람 사는 세상, 소록도

태양이 짙쟁 내리쬐는 2014년 여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요즘 같은 날씨에도 소록도 곳곳에서는 노랑조끼, 파란조끼들을 볼 수 있다. 다름 아닌 소록도 자원봉사자들이다. 멀리서도 확 눈에 띄는 것이 반가운 친지가 찾아오는 듯하다.

이들의 소록도와의 인연은 하루 이틀에 맺어진 것이 아니다. 소록도에 다리가 생기기 훨씬 오래전부터 소록도 할아버지, 할머니들과의 인연으로 해마다 찾아오는 고마운 이들이 한 둘이 아니다.

어떤 봉사단체는 3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소록도와 함께 해 왔다. 강산이 세 번 바뀔 시간동안 그들은 소록도를 다녀갔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 손녀, 가족, 친지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록도와 함께 할 것이다. 소록도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하고자 자신들의 이름 대신 노랑조끼, 파랑조끼라 불리기를 기꺼워하는 이들도 있다.

제주대학교와 소록도의 인연은 올해로 두 번째이다. 올해 7월에도 2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소록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식사수발에서 기저귀 갈기, 심부름 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소록도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봉사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하나 같이 자신의 심境的 변화를 놀라워한다. 한센병, 한센인들에 대한 편견과 불안 등 상상 속에서 그려왔던 모습들이 실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록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순수하고 친절한 모습에 점점 그리움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그리움에 섬을 다시 찾는다.

예쁘지 않은 얼굴이지만 찾아와 살갑게 이야기하고 손을 잡아주는 봉사자들에게 소록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을 느끼신다. 오랜 전 가족과 이웃들에게 버림받아 소록도에 살게 된 스스로는 삶 속에서도 소록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태껏 소록도를 떠나지 않은 것은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줄 자원봉사자들을 기다리기 때문이 아닐까?



함축한 말이다.

여쭙다 마지못해 소록도에 자원봉사를 하러 올 수는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온다면 불안과 공포로 사람다움을 잃어가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자그마한 재능이나마 남과 나누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사람은 제각각의 장점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상대가 가지지 못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의 좋은 점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며 살고 살아야 한다.

두 번의 인연을 맺은 제주대학교 아라봉사단도 소록도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한다. 그동안의 젊고 생기 넘치는 기운을 소록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록도를 모르는, 또는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센병은 무서운 병이 아니며, 한센인들은 우리의 이웃임을 알리는 소록도 홍보맨들이 되어 주길 바란다.

주는 만큼 받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봉사는 다르다. 무언가를 주려고 찾아온 봉사자들은 소록도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만남으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간다. 마음의 치유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소록도를 찾는 봉사자들이 봉사를 통해 참되고 바름,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또한 한 몫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14년 2학기 학사일정

Ⅱ 9. 1.(월) 제2학기 개강
Ⅱ 9. 5.(금)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
Ⅱ 9. 30.(화) 북학·휴학 신청기간
Ⅱ 9. 8.(월) 추석
Ⅱ 9. 9.(화) 추석연휴
Ⅱ 9. 10.(수) 대체휴일

Ⅱ 9. 23.(화) ~ 9.25.(목) 대동제
Ⅱ 9. 30.(화) 수강포기 만료일
Ⅱ 10. 20.(월) ~ 10. 24.(금) 중간시험
Ⅱ 12. 8.(월) ~ 12. 15.(월) 보강 기간
Ⅱ 12. 16.(화) ~ 12. 22.(월) 기말시험
Ⅱ 12. 22.(월) 제2학기 종강

로컬뉴스

제주4·3 평화상 제정

내년 4월에 첫 시상식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은 올해 4·3평화상추념일의 법정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4·3평화상을 제정. 4·3 67주년이 되는 내년 4월에 첫 시상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수상 대상자는 4·3의 진실규명에 공헌하거나 세계평화와 인권신장에 기여한 국내 외 인사 가운데 선정하고 격년제로 시상한다. 시상종류는 본상과 특별상으로 구분하여 본상의 상금은 5만불, 특별상은 1만불의 상금과 메달을 수여한다.

시상명령의는 별도로 구성되는 제주4·3평화상 위원장 명의로 한다. 후보자 선정은 제주4·3평화상 실무위원회가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3배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4·3평화상 위원회가 심사하여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제주4·3평화재단은 전문가 워크숍, 4·3평화상 규정 수립, 평화상 실무위원회 구성 등 평화상 시상에 따른 제반사항을 마련했으며,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고호성(법학대학원장)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4·3평화상 실무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11월까지 수상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제주4·3평화상 위원회는 오는 10월, 전국 각계의 역량 높은 인사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시작에 앞서 한민족의 영원한 발전과 화합의 염원을 담은 성화 채화와 봉송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시행에 돌입했다.

전국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는 전국체육대회 성화 공식 채화지인 강화군 마니산에서 10월 3일 채화하고, 지역채화는 한라산 백담담에서 10월 25일 채화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26일 산전단에서 합화식을 갖고 대회 개막일인 10월 28일까지 3일 동안 도내 전 읍면동을 순회 봉송하여 개최식장인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성화대를 밝히게 된다.

공식 채화된 성화는 10월 3일 강화군수로부터 인계받아 500여km의 항공봉송을 통해 당일 제주도청에 안치되며, 올레길 21개 코스와 추자도·우도를 방문하여 특별봉송을 진행하게 된다.

올레길 봉송은 성화의 성스런 기운이 제주섬 구축구석에 전파될 수 있도록 연인원 273명이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올레길 21개 구간 346km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되며, 이제까지 성화 봉송을 한 번도 안 해본 추자도와 우도에서도 민속공연 등 주민이 함께하는 성화봉송이란 컨셉을 기획하고 있다. 아울러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읍면동에서 제95회 전국체전 성화봉송 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도민의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

버스정보시스템(BIS)보강

버سی이용객으로부터 호평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고, 신속 정확한 버스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 1단계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버سی이용객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버스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하철 시스템과 유사한 승객용 안내기를 시내·외 버스 전차량에 설치해 버스운행정보, 대중교통 이용안내 및 홍보사항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특히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청각 가능 모니터 설치, 4개 국어 멘트 및 표기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아이폰에 대하여 버스정보 전용 모바일 어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버سی이용객 중심의 버스정보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년도 2월까지 30억원을 투입하여 버스정보시스템(BIS) 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들의 평생교육진흥

취·창업 등 다양한 교육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미래역량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평생교육진흥 209개 사업과 우수, 취·창업 30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약자를 위한 비정규학교 5개교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이 계획은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계구축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지원 △지역사회 학습 역량 강화 등 4개 영역, 15개 과제, 209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도, 도교육청, 제주시, 서귀포시 관련부서 주관으로 정상추진되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다음달 중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도민들이 평생학습 욕구를 반영하여 제주형 학습모델 개발을 위해 27개 우수프로그램에 9100만원, 취·창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운영을 활성화 했다.

취·창업 지원 특화프로그램은 지역대학과 기업체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관광대는 와인소믈리에 양성과정을 제주국제대는 자동차 진단평가사와 에너지저장장치 설계 2개 과정을 운영중으로 이 과정에 50명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및 내년도 평생학습진흥 시행계획에 반영시켜 개선해 나 갈 방침이다.

‘내 고장 역사찾기’ 추진

「제주의 숨은 보물」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내 고장 역사 찾기’ 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 기록물 자료 모음집 「제주의 숨은 보물」을 발간했다.

‘내 고장 역사 찾기’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도내 각종 단체, 개인 및 마을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록물을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그동안 3524건을 수집했다. 「제주의 숨은 보물」 자료집은 전체 수집 기록물중 100여건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기록물 관련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통해, 전체 7개 유형(고문서, 개인(가족) 기록물, 사회단체(마을) 기록물, 간행물(전적류), 사진 기록물, 증명서, 기타)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내 고장 역사 찾기’ 수집 기록물 자료 모음집을 연속 시리즈로 발간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기록물은 대외적으로 공개·활용됐을때 그 진정한 가치가 발휘된다”고 밝혔다.

설문대할망제 문화행사

성공리에 대회 마쳐

제주돌문화공원(소장 이순배)은 2014년 설문대할망제 문화행사 신화세미나를 지난 8월 29일부터 이틀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돌문화공원과 한국무속학회(회장 김현선), 제주대학교 박물관(관장 허남춘 국어국문학과 교수)이 주관하여 개최됐다.

매년 5월 돌문화공원에서 개최된 ‘설문대할망제 문화행사’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으나 금년 행사의 경우 신화세미나를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무속과 신화 관련 최고의 권위자들이 참여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기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 교수들과 제주대 교수들이 함께 제주 곳과 신화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한편 한국무속학회는 한국의 전통문화 중에서 민중적 사유의 중심인 무속을 연구하는 전국적 학자들의 모임으로, 제주의 무속과 무가에 대해 지속 연구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박물관(관장 허남춘 국어국문학과 교수)은 최근 제주 무속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제주 신화를 어떻게 ‘신화 전서관’ 속에 구현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료 제공=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
정리=강수빈 기자